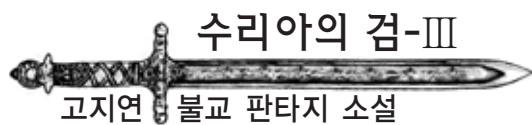


여기엔 어떻게 온 것이지? 혼자 온 것이냐?



사막의 세 머리 용 (6)

그 순간, 무니는 말을 멈췄다.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 난다는 용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것이다. 정말 용이 그런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 한 번 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다. 마을 노인들은 난다가 유리 영감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는 말들을 하고는 했었다. 두 사람 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외면하지 못했다. 특히 그게 낯선 종류의 것이라면 더욱 그랬다. 하지만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우선이었다. 늘 자신보다 이성적인 난다지만, 이럴 때면 어디 한 군데가 고장 난 것처럼 굴었다. 무니가 다시 난다를 다그쳤다.

“야, 내 말 안 들려?”

그러나 난다는 정말 들리지 않는다는 듯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남키는 그런 난다를 너무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며 무니에게 물었다.

“책 읽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무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다도 원래는 무니와 비슷해서 책 읽는 것보다 노는 걸 좋아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달라지더니 이 여행을 시작한 이후로는 점점 더 책에 매달리게 되었다. 오죽하면 무니가 ‘열음의 성’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내내 ‘무상의 도서관’에만 있었을까. 난다는 어차피 그들의 목적지가 도서관이었으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무니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책이 모여 있는 곳이었으니, 난다는 분명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책에 빠져들어 있었을 것이다. 물론 무니는 난다가 왜 그렇게 책에 집착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연금술사가 사르나트의 바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수레바퀴 중 은빛 바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그걸 눈치채기까지 몇 달, 몇 년이 걸린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바퀴의 속도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 빨라지고 있었다. 유리 영감의 비망록에는 은빛 바퀴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을 수 없으며, 한 바퀴를 완전히 돌기 전에 수리아의 검 조각을 다 모아야만 한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은빛 바퀴의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를뿐더러,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각이라고는 달랑 두 개뿐이었다. 유리 영감이 남긴 책과 리시의 예언서 한 권만 가지고서 수리아의 검에 대한 단서를 찾기가 힘들었다. 그래서인지 난다는 어디서든 책이 있는 곳엔 꼭 들렀다. 그러다 결국 가장 방대하다는 ‘무상의 도서관’에서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책들을 찾아낸 것이다. 난다는 그 중 몇 권을 그곳에서 몰래 가지고 나오기까지 했다. 다만 문제가 있었다. 그 고대의 문서들을 일일이 다 해독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무니는 난다가 가끔 사르나트의 바퀴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곤 한다는 걸 알



삽화 · 김홍민

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무니 자신은 이상할 정도로 바퀴의 속도가 전혀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어떻게든 검 조각을 모두 모아 수리아의 검을 완성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고, 그렇게 하기 전에 수레바퀴가 한 바퀴를 다 돌아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야, 근데 저거 무슨 소리지?”
그때였다. 남카가 낮은 목소리로 외치듯 말했다.

각자의 생각에 골몰해 있던 무니와 난다는 동시에 고개를 들어 위쪽을 바라봤다.

정말 어렴풋이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 같았다. 가만히 들어보니 풀피리와 비슷한 소리였다.

“칸타카! 분명 그 술주정뱅이가 집 쪽으로 오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야! 난다, 이 자식, 너 때문에 또 이게 뭐야!”

무니의 추측은 맞았다. 연금술사의 발걸음은 집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늘 아침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손에는 작은 책 한 권을 들고 있었고, 취한 것처럼 멍해있던 눈동자는 어떤 기대감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집이 가까이 보이기 시작하자 발걸음을 점점 더 빨라졌다. 소년들에게 신호를 보낸 후 몸을 숨기기 위해 우왕좌왕하고 있던 칸타카는 연금술사가 바로 자기 옆을 스쳐 지나가자 얼어버린 듯 멈춰 섰다. 그렇지만 다행히 온통 들고 있던 책에 정신이 팔려있던 연금술사는 멍뭇하게 서 있는 칸타카를 보지 못하고 지나쳐 갔다.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도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그가 ‘탁!’ 하는 소리를 내면서 뭔가를 건드리자 등불이 켜지면서 집 안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그는 병들을 대충 밀어낸 후 책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촌장이 이걸 어떻게 알고 빼냈을까. 생각보다 아는 게 많은 자일지도 모르겠어.”

혼자 중얼거리던 그는 기념으로 술이 빠질 수 없다는 듯 콧노래를 부르며 방구석에 가득 쌓여있는 술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다 문득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가웃거리며 주위를 둘러봤다. 집 안이 미묘하게 달라 보였다. 자신이 살기 시작한 이후로 방문객이 하나도 없던 집이었다. 지독한 유행 냄새 때문에 집 근처에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에게만 익숙한 이 공간에서 어쩐지 낯선 공기가 느껴졌다. 굳은 표정으로 천천히 집 안을 훑어보던 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화덕 아궁이에서 멈췄다.

한편 지하에서 숨죽이고 있던 소년들의 귀에 ‘달락!’ 하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 들어왔나 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난다가 말했다.

“뭐야. 그럼 이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또 갇힌 거야?”

정말 싫다는 투로 무니가 말했다.

“조용히 좀 말해. 위에 다 들려잖아.”

이미 바닥에 주저 앉아있던 남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제야 두 소년은 입을 다물었다. 남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근데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이젠 나네 돌만 문제가 아니라, 나까지 큰일이잖아.”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던 난다는 다시 책을 펼쳐 들었다. 그때 희미하게 콧노래가 들려왔다. 아침에도 들었던 소리였다. 그런데 무니가 어쩐지 불길하다며 위를 올려다보는 순간 갑자기 콧노래 소리가 푹 끊겼다. 무니와 남카의 시선이 마주쳤다.

“확실히 불안한데?”

위기감을 느낀 건 남카도 마찬가지였다. 무니는 난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난다는 아랑곳 없다는 듯 이제는 책장의 책까지 하나하나 꺼내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다. 남카는 그런 난다를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다.

“난 책 읽는 사람도 별로 본 적 없잖아, 저렇게 책만 보는 애는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어.”

“앞으로도 다시 못 볼 거야, 아마.”

“근데 저 녀석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 책이 눈에 들어오냐고.”

무니는 난다를 흘깃 쳐다보고는 말했다.

“어찌됐어? 어차피 듣키거나 이렇게 간혀있거나 둘 중의 하나일 텐데.”

“야, 너 그거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무니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난다에게 다가와 읽고 있던 책을 뺏으며 말했다.

“자, 이제 방법을 내놔 봐.”

난다가 놀라서 무니를 쳐다봤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난다가 뭐라고 입을 열려던 찰나, 위에서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대로 세 사람은 또다시 숨을 죽였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다.

“정말 둘 중 하나네.”

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던 남카가 한숨을 쉬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역시 위쪽을 바라보고 있던 무니가 남카의 어깨를 톹 쳤다. 그리고는 고개를 내려 난다를 쳐다봤다.

“그래. 차라리 듣키는 게 낫겠다. 벌써부터 숨이 막힌다고 아까 거긴 창문이라도 있었잖아.”

그때 그들 앞으로 흙덩이가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아궁이 쪽이었다. 이걸 지금 정말 누군가 화덕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네 소원대로 되겠는데?”

남카가 무니의 말에 또 뒤늦은 장단을 맞췄다. 마치 다 포기한 듯한 말투였다. 무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남카쪽을 쳐다보는데 또 다시 ‘후두둑!’ 하고 소리가 났다.

연금술사는 누군가 이 집에 침입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도대체 누구지?’ 문득 촌장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그의 생각은 지하 공간까지 미쳤다. ‘어떻게 알고?’ 그러나 그가 화덕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지?”

연금술사는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고 걸어다니니, 갑자기 문을 확하고 밀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는 등불을 들고는 집 밖을 나섰다. 그리고 등을 아리저리 비추며 결국 칸타카의 흰 꼬리를 발견했다.

“네 녀석이구나.”

그는 웃으며 칸타카에게 다가갔다. 칸타카는 순간 망설이는 듯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무니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했으니 어쩔 수 없었다.

“어떻게 여길 왔지? 네 주인이 있는 곳은 여기서 아닌데 말이야.”

연금술사는 말의 목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주 예전에 내게도 너와 같은 종류의 말이 있었지. 그래서 널 보자마자 탐이 났지만 말이야. 너희 종들은 정해진 주인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러나 이제 주인의 운명도 알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으니 말이야. 후후. 근데 도대체 여기엔 어떻게 온 거지? 혼자 온 것이냐?”

<h3>불자 정보</h3> <p>841호 </p> <p>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p>	<h3>포교원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 평수 약 60평 • 3층 건물 중 2층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절충 <p>010-5685-2229</p>	<h3>포교원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산시 북구 화명동 • 평수 70평 • 방4개, 법당, 삼존불 • 보증금 3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몸만 오시면 됩니다 <p>010-4590-4809</p>	<h3>사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고성군 대가면 고성 IC 10분거리 • 조립식 법당 23평, 요사 11평, 산신당 5평, 스님방 • 총평수 168평 (실평수 300평) • 20년된 사찰, 법당 앞까지 주차가능 • 가액: 9천만원 (절충가능) •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p>010-4618-7063 010-7450-7011</p>	<h3>사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충북 청원군 미원면 문암리 부근 • 대지 220평, 임야 168평, 밭 754평 • 요사, 산신, 용궁, 해수관음이 모셔져 있음, 법당 25평 • 가액: 3억 7천만원 <p>010-8801-3837</p>
<h3>포교원(급)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양천구 신월4동 대로변 아파트 밀집지역 • 양쪽으로 재래시장, 생활권포함 • 평수 2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000만원(분당시설포함) • 시설을 직접 바뀌서 최신 A급 • 보시고 결정하세요, 답사 후 절충 • 꼭 필요한 분만 전화 요망 • 건강 문제로 급 양도 <p>010-3827-6869</p>	<h3>포교원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대전 • 구룡산 등산로, 전망 좋음 • 상가주택 • 대지 60평, 건평 90평 • 뒤에는 주택과, 앞에는 구룡산 등산로 • 가액: 3억 5천만원 (용자 9천만원) <p>010-6668-2249</p>	<h3>사찰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분당인접 • 대지 면적 약 2500평 • 건물평수 50평짜리 2동 • 등산로 인접, 전망, 터 최고 • 국유지 약 2만평 인접 • 산책로로 사용가능 • 가액: 건물포함 평당 95만원 (용자 10억) • 중환자 숲속, 요양집으로도 적격 <p>011-726-4711</p>	<h3>포교원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김해시 내동 김해과학고 부근 • 평수 : 45평 • 3층건물 중 2층 • 부처님, 집기일체, 요사채, 후원, 방2, 법당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1000만원 <p>010-4576-0476</p>	<h3>사찰부지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북 문경시 가은읍 저울리 • 불교종단부지: 교육연수원부지 전+임 합 7만 • 5천평 서울1시간거리,재원산,매봉,비룡산 수정봉등 주택,불교책매시 조성가능 • 가액 40억 <p>주인직010-6460-1316</p>
<h3>대형포교원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대구시 동구 지하철역세권 • 대형포교원(10년 운영) • 4층중 2개층 사용, 140평 • 옥상 80평 (지소대, 텃밭, 창고) • 차고 有, 주차 100대 가능 • 현물교대학, 서식, 다실운영중 • 큰방 5(조 특급)생활불교가능 • 보증금 3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6천만원 <p>010-6797-3223</p>	<h3>암자 안내</h3> <p>경북 영양 일월산 부근에 한옥 1동 현재 인법당 부지 150평 국유지 200평, 암자 35년세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양도함 위 암자에 대한 문의시 상세설명 암자주소는 미공개함 가액: 4800만원, 주인직</p> <p>010-3538-2211</p>	<h3>포교원(급)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대구 죽전동 • 지하철 5분거리 • 3층건물 2층, 45평 • 보증금 500 월 30만원 • 시설비 :상당후 절충 • 방2개 주방겸 넓은 거실 살림 가능 • 도심속 위치 좋습니다 • 참 좋은 인연이었으면 합니다 <p>010-6616-8025</p>	<h3>포교원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의정부역에서 8분거리 대한생명 옆 현재 운영중 • 약 70평, 5층건물의 5층 • 법당, 삼존불, 탕화, 집기일체, 방2 • 거실1, 입식부엌1, 도시가스, 살림가능 • 화장실 남녀 각 1개씩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 4억불사이득하여, 스님이나 보살님께 양도 <p>010-8667-1200</p>	<h3>포교원 안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울산 • 실평수 50평 • 가액: 5천만원 • 시설비 포함 <p>016-614-8730</p>

도심 포교원(급)안내

18년 역사 포교당

서울특별시 인근 신도시 (인구 30만)

서울역에서 전철로 35분 및 반포대교에서 자가용으로 35분거리

건평 총면적 101평

법당과 시민선방완비

주지실, 기도법사실, 종무소 별도

모든 살림집기 일체, 즉시법회가능

시설비 2천만원

보증금 1천 5백만원

010-3474-0057